

청와대 오찬에 참여해 주신

님께

지난 10월 6일에 마련한 청와대 영부인 초청의 오찬모임은 즐거우셨는지요?

이 모임은 음년 5월에 있었던 <행복한 가족기금 조성을 위한 100인기부론티>에 권양숙 영부인께서 처음으로 참여하신 것이 제기가 되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오찬은 청와대에서 마련하였지만, 오찬의 진행은 한국여성재단의 식구들이 담당함으로써 재단 홍보대사들의 탁월한 토크로 영부인을 포함한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한 때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해마다 창립기념행사를 제외하고 보면 오늘의 재단이 있기 까지 창립회원으로, 기부자로, 임원으로, 홍보대사 또는 토크 기부자로, 노력봉사자로 그리고 실무자로서 수고가 많았던 여러분에게 서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한번도 마련하지 못했던 재단으로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잠깐이지만 식구들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오찬 마련이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재단이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재단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영감을 얻고, 바쁘신 시간 내셔서 오찬을 빛내 주시고 의미를 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동봉하는 사진으로 한 때의 즐거움을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찬에 불미한 것이 있었다면 재단의 잘못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청와대 오찬에 참여해 주신

님께

지난 10월 6일에 마련한 청와대 영부인 초청의 오찬모임은 즐거우셨는지요?

이 모임은 금년 5월에 있었던 <행복한 가족기금 조성을 위한 100인기부 릴레이>에 천양숙 영부인에게서 처음으로 참여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오찬은 청와대에서 마련하였지만, 오찬의 진행은 한국여성재단의 식구들이 담당한 것으로써 재단 홍보대사들의 탁월한 팔러트로 영부인을 포함한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한 때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해마다 창립기념행사를 제외하고 보면 오늘의 재단이 있기 까지 창립회원으로, 기부자로, 임원으로, 홍보대사 또는 팔러트 기부자로, 노력봉사자로 그리고 실무자로서 수고가 많았던 여러분에게 서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한번도 마련하지 못했던 재단으로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잠깐이지만 식구들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오찬 마련이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재단이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재단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오찬을 빛내 주시고 의미를 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동봉하는 사진으로 한 때의 즐거움을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찬에 불미한 것이 있었다면 재단의 잘못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7일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